함평 나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광주 - 동광령IC 구간 광역 동행료 환불
우천시 9홀 이후 홀별요금정산제 실시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 올림픽을 빛낸 광주·전남 출신 선수들 - 배드민턴 이 용 대

‘살인 윙크’…자고 나니 스타

요즘 “자고나니 스타가 됐다”는 말을 실감하는 2008 베이징올림픽의 별이 있다. 주인공은 화순출신으로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이용대(20·삼성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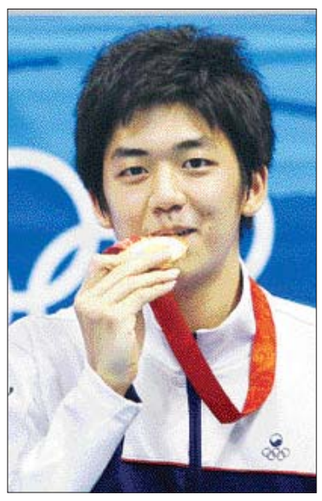
베이징올림픽 최고의 스타로 떠오른 한국 배드민턴의 새로운 에이스 이용대는 혼합복식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특히 우승한 뒤 화순에 사는 어머니 이애자(46)씨에게 ‘금메달 윙크’를 날려 베이징 최고 스타로 떠올랐으며 한국을 넘어 중국과 인도네시아 비롯한 수많은 해외 팬들도 생겼났다.

베이징 입성 당시부터 가수 이승기를 빼닮은 외모로 ‘국민 남동생’으로 인기몰이를 한 이용대는 경기 직후에 날린 윙크 세리머니로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며 최고의 훈남이 됐다.

경기 직후 이용대 선수의 미니홈피 서버가 다운됐을 정도였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뉴스 검색어 순위 1~2위를 오르내렸다. 올림픽이 끝났지만 열광하는 팬들은 늘고 있다. 여성팬들은 ‘너무 귀엽다’ ‘윙크 한 번 더’라는 등 외모에 호감을 나타내는 등 그의 일거수 일투족은 모두 뉴스가 되고 있다.

이용대는 27일 화순군청에서 열리는 환영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집을 방문한다. 하지만 몸이 열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빼곡하게 잡혀있는 행사 스케줄과 인터뷰때문에 집에서 어머니 이애자(46)씨가 해주는 따뜻한 밥 한 그릇도 먹지 못하고 곧바로 서울로 향해야 될 것 같다.



훈남 외모 일약 ‘국민 남동생’

결승 직후 검색어 1위 올라

내일 고향 화순서 환영 행사

25일 오후 3시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용대를 맞은 아버지 이자영(49), 어머니 이애자(46), 형 이대로(25) 씨 등은 “너무 수고했다. 건강은 괜찮니”라는 짤막한 말로 만남의 인사를 대신할 수 밖에 없었다. 여기저기서 밀려드는 카메라 플래쉬와 사인공세 때문이었다.

어머니 이애자씨는 “용대가 일정이 너무 많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홍삼 달인 물과 평소 좋아하는 갈비찜을 마련했는데 전달도 못했다”며 막내 아들이 혹시 건강을 해치지나않을까 걱정이다.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는 이용대는 외모와 함께 운동신경도 아버지로부터 물려 받았다. 아버지 이자영씨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핸드볼 선수로 뛰라고 권유했을 정도로 여러가지 운동에 소질을 보였다고 한다.

평소 모든 수입은 어머니에게 맡기는 등 지극한 효자인 이용대는 이번 포상금 등 일체도 어머니 손에 쥐어 드렸다. 평소 용돈도 어머니에게 말해 꼭 필요한 만큼만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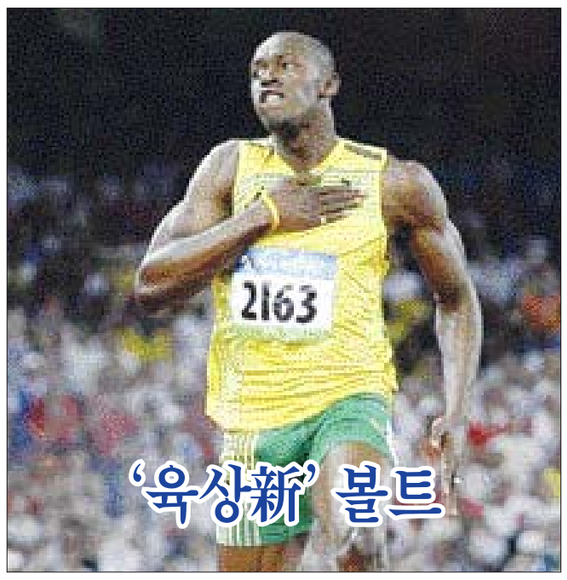
이애자 씨는 “용대가 삼성전기에 입단 후부터 수입은 모두 엄마가 맡아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며 “이번에 올림픽 제패 기념으로 아버지와 함께 상의해 자동차 한 대를 사줄 계획이다”고 말했다.

스무살의 어린나이에 차분한 경기 진행과 타고 난 감각으로 한국 배드민턴을 이끌며 세계적 스타로 발돋움 한 이용대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도 금메달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난 17일 베이징공과대학 체육관에서 열린 배드민턴 혼합복식 결승 이용대(20)-이효정(27)조와 인도네시아의 위디안토-릴리아나조와의 경기에서 이용대가 금메달을 결정짓는 회심의 강 스매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Beijing 2008 결산 〈2〉 기록으로 본 올림픽



장미란 5개 등 세계新 46개 ‘풍성’

수영 8관왕 마이클 펠프스(23·미국)와 육상 단거리 3관왕 우사인 볼트(22·자메이카) 두 명의 슈퍼맨을 배출한 베이징올림픽은 기록 면에서도 풍성한 결과물을 남겼다.

물과 땅에서 벌어진 기록 경기에서 선수들은 혼신의 땀을 흘려 세계신기록 수립에 도전했고 그 결과 육상에서 5개, 수영에서 25개, 역도에서 14개, 사이클 트랙 경기에서 2개 등 46개의 세계기록이 쏟아졌다

‘피오나 공주’ 장미란(25·고양시청)은 역도 여자 75kg급 이상에서 세계신기록을 무려 5개나 수립하는 괴력을 뽐내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챔피언의 몸매’라는 코너에서 펠프스, 볼트 등과 각 종목별 최정상급 5명 중 한 명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썬더볼트’ 볼트를 빼놓곤 베이징올림픽 육상을 논할 순 없다. 남자 100m에서 세계기록(9초72)을 보유 중이던 볼트는 궈자티 위창 트랙에서 100m(9초69)와 200m(19초30), 400m 계주(37초10)에서 모두 세계신기록을 작성하고 금메달을 땄다.

100m에서는 처음으로 9초6대에 진입, 한계를 모르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기대감을 안겼다. 200m에서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마이클 존슨이 세웠던 세계기록을 0.02초 앞당겼다. 400m 계주에서도 볼트가 뛴 자메이카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미국이 작성한 37초40을 0.30초 단축했다.

‘8관왕’ 펠프스 무려 7개

볼트 3개 종목서 경신

장 미 란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 지존 옐레나 이신바예바(26·러시아)가 5m5로 세계기록을 1㎝ 경신했다. 24번째 세계신기록으로 2연패에 성공한 그는 2012년 런던올림픽까지 5m15를 넘어보겠다고 공언했다.

에티오피아의 남녀 장거리 지존 케네니사 베켈레(26)와 티루네시 디바바(23)는 각각 5,000m와 10,000m에서 2관왕에 오르며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미루츠 이프터(에티오피아) 이후 28년 만에 양 종목을 석권한 선수들로 기록됐다.

그 밖에 사무엘 완지루(22·케냐)가 남자 마라톤에서 2시간6분32초로 우승, 1984년 LA 올림픽에서 카를로스 로페스(포르투갈)가 작성한 올림픽 기록(2시간9분21초)을 무려 3분 가까이 앞당겼다.

여자 역도 75kg 이상급에 출전한 장미란은 인상 140kg, 용상 186kg, 합계 326kg 등 인상에서 1번, 용상과 합계에서 각각 두 번 등 세계신기록을 5개나 작성했다.

단일대회 사상 첫 8관왕에 오르고 역대 하계올림픽 최다 금메달리스트(14개)가 된 펠프스는 세계기록도 7개나 작성했다. 개인혼영 400m(4분03초84)에서 첫 금메달을 딴 그는 계영 400m(3분08초24), 자유형 200m(1분42초96), 접영 200m(1분52초03), 계영 800m(6분58초56), 개인혼형 200m(1분54초23), 혼계영 400m(3분29초34) 등 금메달을 딴 종목 중 접영 100m만 빼놓고 죄다 세계기록을 갈아치웠다.

일본의 수영영웅 기타지마 고스케(26)는 평영 100m에서 세계기록(58초91)을 세우는 등 평영 200m까지 석권, 아테네올림픽에 이어 사상 첫 2회 연속 2관왕에 올라 일본에서 최고의 국민에게 준다는 ‘국민영예상’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 한국 선수단 어제 귀국

“장하다 태극전사들…대~한민국”

팬·취재진 1천여명 공항에 몰려 뜨거운 환영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 10개로 종합 10위 안에 들겠다는 ‘10-10’ 목표를 초과 달성한 한국 선수단이 17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25일 오후 귀국했다.

선수단이 도착하기 2시간여 전부터 1천여 명이 넘는 팬과 취재진이 몰려 들어 올림픽 사상 역대 최다인 13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단을 열렬하게 환영했다.

사진과 카메라 기자들은 선수단의 입국 장면과 환한 표정을 담느라 플래시 세례가 끊이지 않았고 1, 2층에 빼곡히 모여 든 수많은 팬들은 ‘대~한민국’ ‘파이팅’ ‘오빠~’ 등을 연호하며 비명을 질러댔다.

특히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살인 윙크’를 보내며 유명세를 탄 이용대를 보려는 10대, 20대 여성 팬들도 몰렸다.

이용대를 보려고 공항까지 찾아 왔다는 신혜숙(20·여)씨는 “올림픽에서 이용대 선수를 처음 알았는데 배드민턴을 너무 잘했고 금메달까지 따 너무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용대는 공항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팬들을 보고 나서야 인기를 실감하는 듯했다. 그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다. 사진도 많이 찍히니까 인기가 실감난다. 앞으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용대 보다 7살 누나인 파트너 이효정은 “컨디션이 참 좋아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용대와 나이 차가 많지만 말을 잘 듣고 따라줘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9연승으로 무결점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대표선수단에 마지막인 13번째 금메달을 선사한 야구 대표팀의 김경문(두산) 감독은 “분에 넘치는 언론의 관심이 있었다. 매 경기 쉽지 않았는데 계속 이기면서 자신감도 높아지고 팀워크도 좋아졌다. 이것이 9연승의 원동력이었다”며 “내년 3월에 WBC가 있지만 일단 소속팀에서 잘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전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노장들의 투혼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며 다시 한번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연출한 임영철 여자핸드볼 감독은 “성원에 감사한다. 2012년 런던대회를 준비하려면 국내 환경이 바뀌어야 한다”며 비인기 종목 핸드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여자 헤라클레스’ 장미란, ‘마린보이’ 박태환 등 2008 베이징올림픽 금빛 영웅들은 앞으로도 꾸준한 선전을 다짐했다.

장미란은 내년 고양에서 열리는 세계역도선수권대회 목표를 묻자 “얼마를 들어야겠다고 말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더 좋은 기록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내 이름이 세계기록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닌 만큼 만족하지 않겠다. 2012 런던올림픽에서도 선전하겠다”며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